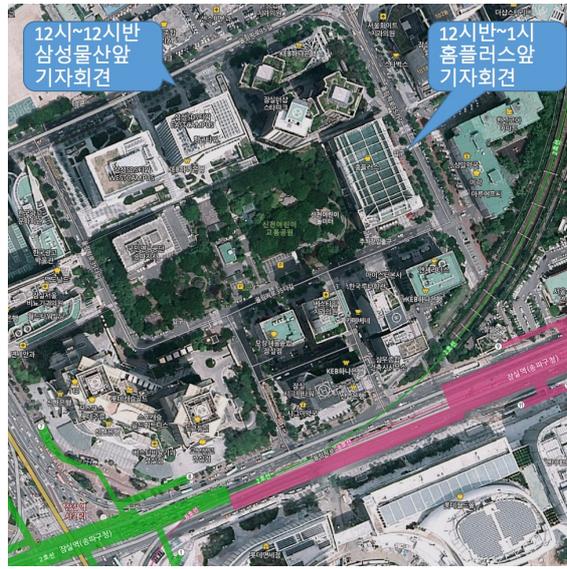




보도자료 2017년 7월 3일자

- 기자회견;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 회차)
- **일시;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12시**
-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5 길 123 삼성물산 주식회사 (2호선 잠실역 7번출구나와 직진후 우회전, 삼성 SDS 건물,향군타워) /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6 홈플러스 잠실점**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 모임(가피모)
- 참가단체; 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가피모, 금융정의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 참가자; 피해자와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 프로그램;
 - 삼성물산앞 기자회견;
 - 왜 삼성이 범인인가?
 - 삼성제품 피해자 발언
 - 삼성을 규탄한다
 - 홈플러스앞 기자회견; 인접한 홈플러스 정문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010-3458-7488), 강찬호 대표(010-5618-0554)



2017년 7월 3일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PB 제품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옥시,롯데제품과 같은 성분인 PHMG로 만든 홈플러스 PB '가습기청정제'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30만개 판매한 당시의 홈플러스를
삼성이 소유하고 운영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발생직전, 삼성측 홈플러스 지분 테스코에 팔고 빠져,
2015년 MBK 파트너스에 홈플러스 팔고 한국에서 철수한 영국 테스코도 책임 회피

삼성의 홈플러스 제품구매 사용자 80만~90만명,
삼성의 홈플러스 제품사용후 병원진료 피해자 7만~11만명,
(2017년 5월 26일 발표된 정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추산,
제품구매자의 89.9%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 홈플러스 제품 구매자 전체의 23.3%)

가습기살균제 참사 7년여만에 삼성의 책임을 묻는 첫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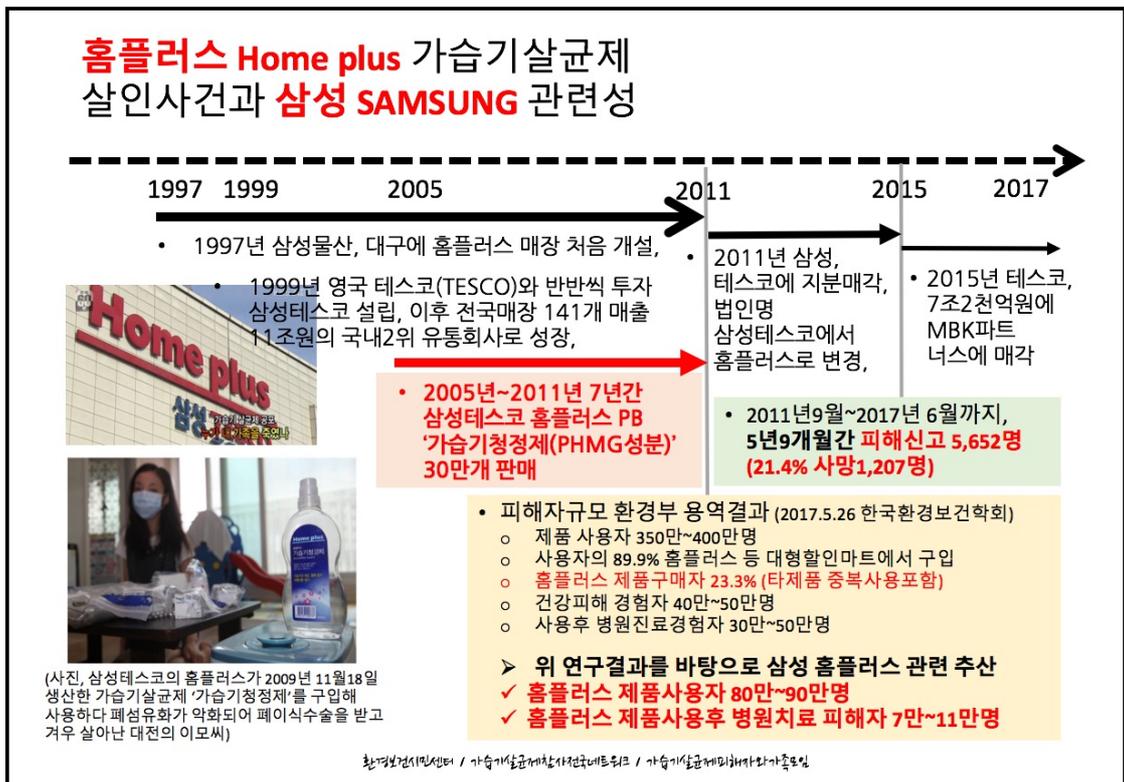
2016년 3월 삼성측책임자 이승한 등 6명 검찰고발했지만 수사안해
홈플러스 김원희 등 실무자만 솜방망이 처벌
그동안 삼성은 단 한차례도 피해자에 사과 않고 나몰라라

검찰은 집단사망사건으로서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1.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의 진짜 주범은 삼성이다. 홈플러스의 '가습기청정제' 30 만개를 판매했던 홈플러스 소유기업은 삼성이었다.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한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 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 조원을 올리며 국내 2 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한다.

삼성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 PB(자체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30 만개를 판매한다. 삼성 홈플러스의 가습기청정제는 옥시레킷켄키저의 옥시썩삭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의 PB 와이즐렉과 같은 PHMG 라는 이름의 같은 살균제성분을 사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살균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피해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다.



2011년 삼성은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지분을 매각한다. 테스코는 법인명을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다.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시기적으로 볼때 삼성이 홈플러스를 매각한 배경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015년 테스코는 7조 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MBK 파트너스라는 기업에 매각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되가는 사이에 삼성은 단 한번도 이 참사와의 관련성이 언론에 제기된 바 없다. 2016년 3월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 여개의 가슴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연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할때 홈플러스의 책임기업으로 삼성 임원 6 명과 테스코의 임원 22 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를 받지 않았다. ([20160302 기자회견문, 홈플러스고발\(삼성물산, 영국테스코 피고발인 등기이사 명단포함\)](#)) 언론 역시 삼성 관련성을 보도하지 않았다.



<사진, 한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붙은 홈플러스 글자 밑에 삼성 TESCO 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를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BS 화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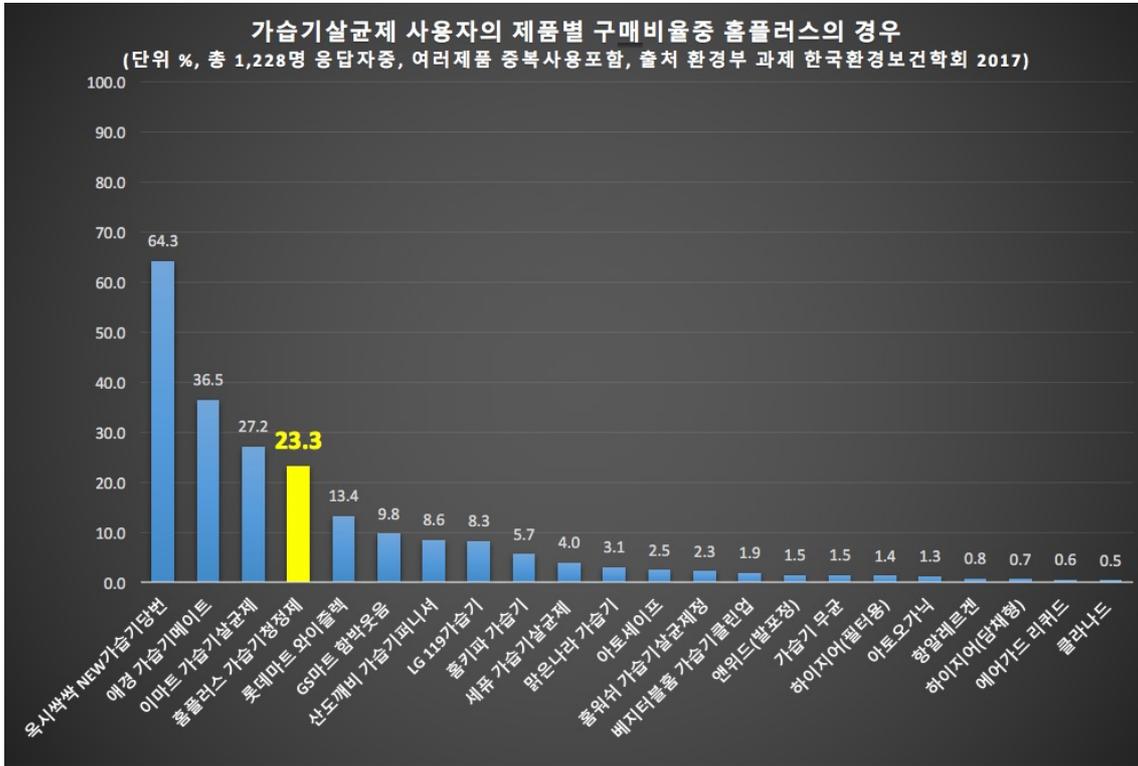
2.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 만~90 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 만~11 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사건발생 5 년이 지난 2016 년 6 월경에야 전체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다. 연구결과는 2017 년 5 월 26 일 학회의 학술대회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가슴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50 만~400 만명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후 건강피해 경험자는 40 만~50 만명이며, 제품사용후 건강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 만~50 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고 한다. 지난 6 월 5 일 세계환경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슴기살균제 피해대책마련과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가슴기살균제 문제는 쉬쉬하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결과에는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구매자들의 89.9%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러제품의 중복사용을 포함한 조사에서 홈플러스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전체의 23.3%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전체 사용자를 추산하면 80 만명~90 만명에 이른다.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7 만~11 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규모의 1~2%에 불과하다.



<사진,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로 폐이식을 해야 했던 대전시민 이씨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십여 가지의 약봉투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PB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3. 검찰은 집단사망사건으로서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삼성이 홈플러스를 운영하던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삼성은 2001년부터 판매된 옥시썩썩이나 2003년부터 판매된 롯데마트 PB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성분까지 동일하게 카피해서 '가습기청정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30만개나 판매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이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가? 하지만 세상은 삼성이 이 참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징 중 하나가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SK 그룹의 SK 케미칼,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LG 그룹, GS 그룹 등이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그동안 비껴나 있었지만 앞서 밝힌대로 깊숙이 관여했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집단사망사건으로서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